‘고성의 미래가 타고 있어요’ 차량스티커 제안

고성군 제안모집에 3개 부문 선정 … 쎈서등 설치 제안 계획

간성읍 김지연 주부

“시간이 나는 대로 몇 개씩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성읍에 거주하는 주부 김지연씨(41세, **사진**)가 지난 6일 고성군이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실시한 2011년도 제안모집 결과 제안우수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김씨는 이날 장려상 1개와 노력상 2개가 선정돼 모두 3개의 상을 받았다. 장려상은 자녀 출생신고 때 ‘고성의 미래가 타고 있어요’ 라는 차량스티커를 나눠주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노력상은 지역사랑 카드 홍보와 인도불편 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차량 스티커 아이디어에 대해 그녀는 “차량 뒤편에 보통 ‘우리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것보다는 ‘고성의 미래가 타고 있어요’ 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타 지역에 나가더라도 고성을 홍보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번에 선정된 제안 말고도 수시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행정에 제안해왔다. 많을 때는 한달에 다섯개나 제안했다. 요즘은 쎈서등 설치에 대해 제안을 구상하고 있다.

“화진포 등 주요 해변의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실내가 밝은데도 항상 등이 켜져 있어요. 또 환한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도 있고요. 이런 지역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센서등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부터 2년 임기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가정 주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느라 바쁘게 지내는 가운데도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7일에는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춘천 출신으로 지난 2006년 고성으로 이주해 자영업을 하다 2008년 결혼해 현재 1남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씨는 올해부터 고성신문 칼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봉포항~천진 해안도로, LED 가로등 교체”

주민발언대 토성면 봉포리 김태극(47세)

저는 토성면 봉포리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극(47세)입니다.

평소 장사를 하느라 여념이 없지만 우리지역에 대해 주민들과 이야기하던 것 2가지만 꺼내 놓겠습니다.

첫째, 봉포항에서 천진까지 해안도로가 생겼으면 합니다.

현재 켄싱턴리조트까지만 해안도로가 건설돼 있습니다. 켄싱턴리조트 해안도로를 연결해 봉포항 천진까지 해안도로가 건설되면 해안도로를 타고 바로 청간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속초에서 벗어나 고성으로 들어오는 첫 입구에 위치한 우리 지역은 여름을 비롯해 사계절 관광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기반시설과 관광코스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관광객의 유입은 곧 주민소득 증대에 직결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켄싱턴리조트에서 투숙하고 나오는 관광객들이 바로 4차선도로를 타고 북쪽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켄싱턴리조트에서 천진까지 해안도로가 연결되면 시원한 바다를 보며 청간정까지 구경을 할 것입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다보면 바다 조망이 탁월한 인근 펜션 등지를 둘러보다 숙박을 하게 될 것이며 숙박을 하다보면 식사를 하고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소비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들은 하루 속히 해안도로가 착공되길 바랍니다.

둘째, 천진초등학교에서 봉포 끝가지 이어지는 소방도로의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했으면 합니다.

봉포시내에서 경동대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나서 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밝게 보이는 지 새로운 동네 같습니다.

LED 조명은 소비전력이 낮고, 수명이 길며,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 있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성의 첫 관문인 천진과 봉포지역에 고성능, 고효율적인 LED 가로등의 교체로 관광 일번지 고성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고성군의 품격을 높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백마디의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고 실천이 곧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시다.

원광연 기자

속초소방서 인사발령 현황 (괄호안은 전직)

▼소방경 △현장지휘대 유중근(간성119안전센터) △〃 신성일(홍천소방서) △〃 김흥권(강릉소방서) △노학119안전센터장 정호봉(강릉소방서) △영랑119안전센터장 김남용(강릉소방서)△간성119안전센터장 이호일(간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예방안전과 김진술(홍천소방서) △현장지휘대 곽인식(홍천소방서) △노학119안전센터 조영건(강릉소방서) △영랑119안전센터 이종인(간성119안전센터) △〃 이승철(강릉소방서) △간성119안전센터 이창봉(영랑119안전센터) △〃 김명섭(홍천소방서) △〃 김달수(홍천소방서) △양양119안전센터 이석주(강릉소방서) △거진119안전센터 이재순(간성119안전센터) △〃 김동하(홍천소방서) △동광119안전센터 오세현(강릉소방서) △〃 김택정(강릉소방서) △현남북119안전센터 김록기(거진119안전센터) △〃 김용규(동광119안전센터) △〃 김상욱(노학119안전센터)

▼소방장 △소방행정과 김윤경(노학119안전센터) △예방안전과 한성필(간성119안전센터) △노학119안전센터 홍성태(거진119안전센터) △〃 최미선(강릉소방서) △〃 박태진(강릉소방서) △〃 가기수(홍천소방서) △영랑119안전센터 남상춘(노학119안전센터) △〃 조규현(강릉소방서) △간성119안전센터 이광원(노학119안전센터) △〃 임동빈(노학119안전센터) △〃 김진석(소방행정과) △〃 최제헌(소방행정과) △〃 황일근(소방본부) △양양119안전센터 윤종호(간성119안전센터) △〃 정진원(노학119안전센터) △〃 정백교(영랑119안전센터) △〃 이용국(거진119안전센터) △거진119안전센터 신동승(동광119안전센터) △〃 박도원(동광119안전센터) △119구조대 김명규(설악산악119구조대) △설악119산악구조대 장남중(홍천소방서) △동광119안전센터 유수현(영랑119안전센터) △〃 송길동(노학119안전센터) △현남북119안전센터 심재영(거진119안전센터) △〃 이화현(거진119안전센터) △〃 김한양(간성119안전센터) △〃 임돈순(노학119안전센터) △〃 김석주(거진119안전센터) △〃 이화현(거진119안전센터)